

# Untitled APT

WORKS WORKS

《Untitled APT》

Sun Lee Solo Exhibition

2026.08.06-08.26

“우리의 집은 세계의 한 귀퉁이이며, 우리의 첫 번째 우주이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에서 집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기억과 상상, 몽상이 가장 먼저 깃드는 장소로 바라본다. 집은 몸이 머무는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삶의 감각과 관계가 축적되며 내면의 풍경으로 변해가는 장소다.

선리 개인전 《Untitled APT》에서 작가는 오랫동안 살아온 ‘아파트’의 공간과 구조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기억의 방식을 하나의 공간적 장면으로 구현한다. 아파트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해왔으며, 많은 이들에게 어린 시절과 일상의 기억이 축적된 장소이기도 하다. 작가에게도 아파트는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며 삶의 리듬을 익히고 관계를 형성해온 공간이다. 반복해서 지나던 현관과 복도, 문과 창문은 너무 익숙해서 미처 의식하지 않았던 일상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떠올린 장소는 일부가 희미해지고, 일부는 어린 시절의 감정에 의해 강조되며, 서로 다른 시기의 장면들이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겹쳐진다. 선리는 이처럼 아파트를 기억하는 방식에 주목하며, 기억 속에서 다시 구성된 아파트라는 장소를 전시장 안으로 옮겨온다.

올해 초 작가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오래된 계단과 복도, 현관과 창문은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가 아닌, 시간이 켜켜이 쌓인 풍경처럼 다가왔다. 익숙했던 풍경은 더 이상 기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고, 희미해진 부분과 새롭게 보이는 장면들이 함께 존재했다. 작가는 그 미묘한 간극을 따라 아파트 공간 구석 구석을 들여다보았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장면들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Blue APT>는 이러한 여정의 출발점이 된 작업이다. 과거의 좌표를 지워낸 자리에는 오래된 벽의 색과 복도의 빛, 반복되는 구조와 표면만이 남고, 개인의 기억에 머물던 아파트는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겹쳐볼 수 있는 풍경으로 확장된다.

사진에서 시작된 장면은 전시장 안에서 다시 입체적인 공간으로 이어진다. 현관과 문, 창문, 거울, 방과 침대는 실제 아파트를 충실히 복제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기억에 접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자 동시에 시간의 흔적을 드러내는 장치들이다. 현관과 문은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도 두 공간을 연결하는 경계이며, 여러 번 덧칠된 표면과 닳은 문틀은 한 장소를 유지하고 그 안의 관계를 지속해온 시간을 품는다. 창문은 내부를 보여주면서도 관객을 일정한 거리 밖에 머물게 하며, 지나간 시간은 바라볼 수는 있어도 다시 들어갈 수 없는 대상임을 암시한다. 흐린 거울은 현실을 선명하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관객은 <Crying Mirror>의 불완전한 반사 이미지 위에 자신의 기억을 겹쳐 보며, 작가의 공간을 바라보는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게 된다. <Untitled APT (room)>과 <Blue APT (bed)>에서 방과 침대는 단순히 사적인 공간을 넘어 익숙한 사물들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통해 기억의 불완전한 구조를 드러낸다. 관객은 이 낯선 구조 앞에서 안과 밖, 휴식과 긴장, 방과 욕실처럼 서로 다른 감각들이 뒤섞이는 경험을 마주하게 된다.

전시는 서로 다른 시간과 감정이 중첩되며 끊임없이 다시 쓰이는 기억의 구조를 공간으로 펼쳐 보인다. 작가는 익숙한 공간의 사물과 표면을 통해 기억이 현실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라진 부분과 남겨진 흔적 사이에서 새로운 장면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관객은 전시장을 거닐며 작가의 기억을 따라가는 동시에, 자신이 한때 머물렀던 집과 그 안에 남아 있는 시간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바슐라르가 말한 ‘첫 번째 우주’는 이곳에서 한 사람의 아파트에 머물지 않고, 각자의 기억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집으로 확장된다.

글 | 허다현

## 작가 소개 About the Artist & her process



선리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 작가로, 일상적인 공간에서 경험되는 긴장감과 미세한 신체적 감각을 입체,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탐구한다. 초기 작업에서는 후각을 통해 환기되는 기억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무형의 감각과 서사에 주목하며, 보이지 않는 경험을 물질의 형태로 치환해 조각과 설치의 언어로 번역하는 방식을 모색했다. 이후 이러한 관심은 사우나를 비롯한 일상적 공간으로 확장되었고, 물과 증기, 타일, 거울 등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몸과 맺는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생성되는 신체화된 경험으로 이어졌다.

작가는 몸을 둘러싼 환경이 감각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관찰하며, 불안함과 안정감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동반하는 장소와 서사를 추적함으로써 공간과 개인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형상화한다. 그녀에게 공간은 물리적 장소를 넘어 몸의 감각과 기억이 축적되고 정서를 환기하며 의미를 획득하는 환경이며, 작업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경험을 사물과 공간의 형식으로 드러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선리는 서울과 글라스고, 런던을 포함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 선리 Sun Lee

b.1993 서울

### Solo Exhibitions

2026 Untitled APT, WORKS WORKS, 서울  
2022 Blue Sauna: 블루 사우나, 빈칸 을지로, 서울  
2021 Margaret MacDonald House, 89 Buccleuch St,  
Glasgow G3 6QT, Tya 갤러리, 서울

### Group Exhibitions (Selected)

2025 PRPT (PromptSet): Vault Service II, WZ Studio, 서울  
2024 UNDEFINED (Hera C. Crew 아카이브 전시), 아모레  
성수, 서울  
2023 The Void Art Show - Odyssey, 키르, 서울  
2023 더프리뷰 성수 with 신한카드 (스포츠라이트 작가 선정), 에스팩토리, 서울  
2023 C-Vision: 부산 2023, 안녕, 예술가, 부산  
2023 Old and New, 픽애플레이스 (Show & Tell 주최), 서울  
2020 Playing Hide and Seek with Myself, 캡인터치, 서울  
2019 MFA Degree Show, Glue Factory, 글라스고, 영국  
2019 A Vague Anxiety, Tontine Project Space, 글라스고, 영국  
2019 The Other Side of The Moon, Oxo Tower, 런던, 영국  
2019 Honey, We're Home, Transmission Gallery, 글라스고, 영국  
2019 MFA WIP Screening, CCA, 글라스고, 영국  
2018 INSIDE, The Old Hairdresser's, 글라스고, 영국  
2018 4482 Butterfly effect, Oxo Tower, 런던, 영국  
2018 SKIP-AD; PLAY, Savoy Centre, 글라스고, 영국  
2018 The MFA interim show, Reid Gallery, 글라스고, 영국  
2016 오인의 오오, 국민대학교 갤러리, 서울  
2016 아시아프 & 히든 아트 페스티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울

### Projects (Selected)

2024 Drinking the Water that Runs Off the Rocks, 서울  
2024 GR SAUNA (GRAILZ X SUN LEE), HAUS of GR, 서울  
2023 Hera C.Crew, 헤라, 아모레 퍼시픽, 서울  
2023 I am relieved, 레스트룸 프로젝트, 공간 일리, 서울  
2021 BAMBI, 백현, 뮤직비디오, 아트팀  
2021 Tonight, I won't be eaten, 단편영화, 미술팀  
2020 CASANOVA, 단편영화, 미술팀

### Awards

2022 Tonight, I won't be eaten, Yubari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작품 미술상  
2018 Art scholarship, Glasgow School of Art  
2015 The Korean Society of Media & Art, COSMA 한국  
영상 학회

### Class & Lecture

로로피아나 VIP 고객 대상 컬러링, 드로잉, 페인팅 클래스  
강사  
2025 Loro Piana Holiday Retailtainment Colouring Class  
for VIP clients (KR Stores)  
2024 Loro Piana FW25 Retailtainment Drawing Class for  
VIP clients (KR Stores)  
2024 Loro Piana FW24 Retailtainment Painting Class for  
VIP clients (KR Stores)  
2021 상명대학교 조형예술학과 특강

### Education

2017 - 2019 MFA Glasgow School of Art, 순수미술 석사  
졸업, 글라스고, 영국  
2016 - 2017 MFA 국민대학교 대학원, 입체미술과 석사 중  
퇴, 서울  
2012 - 2016 BFA 상명대학교, 서양화와 학사 졸업, 서울

### Contact

Email: shwinlee@gmail.com

Web: <https://sunlee.info/>

Instagram: @sunleeart

# WORKS WORKS

서울 강남구 학동로 56 길 43 지층

@worksworks.seoul



WORKS WORKS 는 작업 과정과 그 결과물이 서로 이어지며 새로운 지점을 만들어내는 '흐름'에 중심을 두려 합니다. 작업(work)이 작품(works)으로 확장되고, 작품이 다시 또 다른 작업과 감각을 불러오는 구조 속에서 워크스웍스는 그 흐름이 만들어내는 여러 지점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동시대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업과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작업이 새로운 지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관객에게 심미적 아름다움과 지적인 자극을 제공하며 예술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CONTACT

Director / HYOUNGSUB JUNG

+82 10 8986 1107

[worksworks.seoul@gmail.com](mailto:worksworks.seoul@gmail.com)